



주일에배 Sunday Worship

- 1부: 오전 10시
- 사회/설교: 서일원 목사
- 2부: 오전 11시 30분

사도신경 다같이

찬 양 다같이

1. 오직 은혜
2.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 도 다같이

- ① 자신을 낮추고 더욱 겸손히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 ② 성령님과 인격적인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소서.
- ③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비천한 존재가 나임을 알게 하소서.
- ④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응대하지 않게 하소서.
- ⑤ 이웃을 나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 ⑥ 슬로바키아에 영적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소서.

성경봉독 서일원 목사
마태복음 5장 5절 (신약 p.5)

설 교 설교자
“복된 자(3)”

현 금 다같이
“아 맞다”

광 고 사회자

축 도 서일원 목사



수요일에배 Wednesday Worship | 수요일 오후 7:00

- 찬양과 중보기도
- 말씀 나눔



목회자 코너 Pastoral column

온유한 자

예수님께서 사셨던 1세기 당시에 온유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통용했던 세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① 병으로 인해 고열이 생겼지만 다행히 열이 잡혔을 경우에, 사람들은 ‘이제 괜찮다’는 의미로 ‘온유’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② 거센 바람이 불어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일순간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사람들은 ‘온유’라고 합니다. ③ 야생말을 훈련시켜서 사람들의 말을 잘 따르도록 길들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했습니다. 공통점은 힘이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힘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절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이동원, 『이렇게 복되어라』, 53-54).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마 5:5)는 그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온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상황과 온유를 연결시키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1-2와 관련하여 온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와 연결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그저 부드럽고 수동적인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억압과 착취로 인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한 낮은 상태를 지칭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겸손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태도를 말합니다(양용익,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93). 억압과 착취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 백성들은 집권층에게 재산을 갈취당했습니다. 서기관 같은 이들은 글을 알았기 때문에 글을 모르는 과부들을 속여 가산을 빼앗았습니다(막 12:40). 빈부 격차는 매우 컸습니다. 두 랍돈, 대략 1000원 정도 되는 돈을 현금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었습니다(막 12:42; 눅 21:2). 백성들에게 세금 납부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세리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다보니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지 못했습니다(눅 19:7).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 정결법, 성전’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데 이빗 웬함 외, 『복음서와 사도행전』, 51). 그런데 오히려 그런 전통들이 로마 제국 밑에서 억압과 착취로 신음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 큰 짐을 지워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전통을 앞세워 일반 백성들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는 종교지도자들의 허위의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억압과 착취의 상황 아래, 하나님의 처분만을 겸손히 기다리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5:5). 절망과 체념 속에서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기도제목 Prayer

I. 공통기도제목

1.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2.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경험하게 하소서.
3. 절망과 체념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4. 후원하는 현지 목회자 가운데 함께 하소서.
 - ① Bohdan Roháček - Michalovce
 - ② Jose Calvo Aguilar - Žilina
 - ③ Martin Kačur - Spišská Nová Ves
 - ④ Peter Prištiak - Hermanovce nad Topľou
5. 형제교단에 소속된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 ✧ Svätý Jur 교회 - Milan Mitana 목사

II. 주간기도제목

일	주제	기 도 제 목
6일 (주일)	교회	1.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돕도록 이끄소서. 2.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 새로워지는 교회되게 하소서.
7일 (월)	일상	1. 일상에서 어려움과 위기를 겪을 때 기도로 이겨내게 하소서. 2.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8일 (화)	나라	1.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낙담하고 절망하는 이들을 위로하소서. 2. 분열과 혼란이 사라지고 사회,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소서.
9일 (수)	코로나 19	1.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점차 잦아들게 하소서. 2.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여 확진자가 감소되게 하소서.
10일 (목)	슬로박	1. 슬로바키아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2. 슬로바키아 목회자들이 지치지 않고 영육에 강건하게 하소서.
11일 (금)	성경	1. 성경읽기를 지속하여 분명한 신앙의 터를 세우게 하소서. 2.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여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12일 (토)	하반기	1. 하반기 모임이 시작되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여 주소서. 2. 서로의 안부를 묻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되게 하소서.



큐티나눔말씀 Word for Quiet Time

날짜(요일)	본문
9월 6일(주일)	창 41장 1 - 16절
9월 7일(월)	창 41장 17 - 36절
9월 8일(화)	창 41장 37 - 57절
9월 9일(수)	창 42장 1 - 17절
9월 10일(목)	창 42장 18 - 38절
9월 11일(금)	창 43장 1 - 15절
9월 12일(토)	창 43장 16 - 34절

◇ 주일모임안내

모임	안내
오전예배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학생회	오전 11시 30분
어린이 주일학교	오전 9시
오후 성경공부	미정

◇ 주중모임안내

모임	안내
화요 성경공부	미정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광고 Announcement

- **환영**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예배를 위한 예방수칙**
예방수칙 준수방침에 따라 예배를 진행합니다.
① 손 소독, ② 마스크 착용, ③ 거리유지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예배 시작**
오늘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합니다.
① 마스크 착용 필수, ② 개인물통 및 개인용품 사용
- **조별 기도제목 나눔**
조장님에게 기도제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집에서 하는 교리공부’ 신청**
단체카톡방을 만들어 교재를 보내드리고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성경공부를 진행합니다.
- **수요예배**
이번 주 수요일(9일)부터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 **9월 일정**
9월 제직세미나: 9월 19일(토) 오전 10시(온라인)
제직모임: 9월 20일(주일) 오후 12시 30분
9월 조장세미나: 9월 26일(토) 오전 10시(온라인)
직분자 세미나: 9월 27일(주일) 오후 2시(온라인)
- **교인총회 준비**
규약 수개정 공청회: 10월 18일(주일) 오후 2시
인선위원회: 10월 25일(주일) 오후 2시
예결산위원회: 11월 15일(주일) 오후 2시
- **복귀**
이준혁 형제, 광민지 자매(시현, 다현) 가정이 지난 주 토요일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9월 헌금 위원	
1부 예배	김은혜, 박시몬
2부 예배	정민경, 신수린



질리나한인교회 Korean Church of CB in Zilina

2020년 9월 6일
(36주)

KÓREJSKÝ ZBOR CIRKVI BRATSKEJ V ŽILINE

NA SIHOTI 4, 010 01 ŽILINA, SLOVENSKO

홈페이지: www.zilina.kr / 담임목사연락처: 0903 415 821

《교회 표어》 감사하고 또 감사하자!

- ① 어디에 있든지 감사합니다.
- ②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합니다.
- ③ 이웃과 감사를 나눕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편 100편 4절)

✿ 섬기는 사람들

- ▶ 담임목사: 서일원 ▶ 제직: 김영수, 김은혜, 박시몬, 박영환, 서제원 ▶ 찬양팀: 서제원, 정세영
- ▶ 성찬준비: 안온선, 이진일